

No.62

# Japan Weekly Digest

2010. 11. 20 ~ 11. 26

## □ 금주의 이슈

- 북한 연평도 공격관련, 日정부 북한제재 검토
- 한일 희토류 광산개발협력 공조강화에 합의
- 종합상사 소지쓰, 호주 희토류 광산권 획득
- 법무대신, 국회경시 발언문제로 사임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경단련-재무성, 감세 등 정책의견 교환
- 호주와 FTA 교섭재개에 합의
- 민간조사회사, 2011년 일본경제전망 하향조정
- 국제협력은행(JBIC), 앙골라 재건을 위해 융자지원

##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오하타 경상대신, 북한 문제로 원전경계강화 요청
- JR도카이 등 11사, 美플로리다 고속철도 입찰 참여
- 미쓰비시 등 종합상사, 해외근무 의무화추진
- 샤프홀딩스, 매일유업(주)과 수입·판매제휴

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희토류, 일본에 필요한 전략: 오카베 동경대교수 인터뷰 (마이니치신문 11/22)



**협회 한일경제협회**  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□ 금주의 이슈

- 북한 연평도 공격관련, 日정부 북한제재 검토
  - 간 총리는 23일, 연평도 사태와 관련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센고쿠 관방장관과 기타자와 방위상에게 △북한의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 △미국,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 △국민안전의 확보를 지시했음
  - 센고쿠 관방장관은 "용서할 수 없는 것이며, 북한을 강하게 비난한다.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."등의 정부 견해를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강화를 언급
    - \* 일본정부는 관저 위기관리 센터에 정보 연락실 설치
- 한일 희토류 광산개발협력 공조강화에 합의
  -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6일, 호소노 자원에너지청장을 만나 한일 및 제3국에서의 희토류 광산개발 공조강화를 합의함
  - 지경부는 박영준 차관의 일본방문 계기로, 지속적인 에너지·자원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급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
- 종합상사 소지쓰, 호주에서 희토류 광산권 획득
  - 日상사인 소지쓰는 호주기업으로부터 日연간수요의 약30%에 해당하는 희토류 권익을 획득했다고 발표
  - 호주서부의 광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라이너스社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권익을 2억5000만 달러에로 취득하는데 합의
    - \* 이중 80%를 '석유천연가스·금속광물자원기구(JOGMEC)'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
  - 일본은 이 합의로 1년간 필요로 하는 희토류 약30%(9000톤)를 10년간 조달
- 법무대신, 국회경시 발언문제로 사임
  - 야나기다 법무대신은 22일, '국회경시 발언'의 책임을 지고 사임
  - "(국회에서)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. 한 가지는 답변을 삼가겠습니다. 다른 한 가지는 법과 증거를 토대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."는 등의 국회경시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음
  - 총리는 "2010년도 보정 예산안을 성립시켜야 한다."라고 하면서, 그 자리에서 사표를 제출받아 사임시켰음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### ○ 경단련-재무성, 감세 등 정책의견 교환

- 경단련은 22일, 재무성 간부들과의 회담에서 세제개혁 등, 정부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
- 경단련은 법인세인하의 재원확보를 위해, 다른 부분에서 과세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명
- 요네쿠라 회장은 "과세 베이스를 확대하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."고 언급하고, "법인세는 실질적으로 5%정도의 인하를 부탁드립니다."고 요청
- \* 경단련과 재무성의 의견교환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

### ○ 호주와 FTA 교섭재개에 합의

- 마에하라 외무장관은 23일 호주 방문에서 케빈 러도 외무장관, 에머슨 무역상과 회담하고, 내년 1월 FTA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
- 환태평양 경제연계 협정(TPP)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, 희토류 등의 자원 조달, 안전보장에 관해서도 관계 강화책 협의
- \* 양국 FTA는 2007년에 교섭을 시작했으나 쇠고기, 농업 등의 시장개방에 신중한 일본의 입장이 걸림돌로 작용, 중단됨

### ○ 민간조사회사, 2011년 일본경제전망 하향조정

- 日금융계 민간조사회사 7사는 22일, 2010년과 내년 경제성장전망을 발표
- 2010년도는 2%대 성장, 11년도에는 **엔고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**, 0.9~1.8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
- 노무라는 11년도 실질GDP 성장률을 1.4%에서 1.2%로 하향조정. (다이와:2.3%→0.9%, 미쓰비시UFJ:2.7%→1.5%)

### ○ 국제협력은행(JBIC), 앙골라 재건을 위해 융자지원

- 국제협력은행은 23일, 아프리카 앙골라 정부가 계획하는 국영방직공장의 재건프로젝트에, 193억 엔을 융자하기로 했다고 발표
- 앙골라와의 관계강화 배경에는 **자원 확보, 도로, 전력 등의 인프라 수출확대가 있음**

##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오하타 경상대신, 북한 문제로 원전경계강화 요청
  - 오하타 경상대신은 24일, 북한에 의한 연평도(延坪島) 포격과 관련하여, 원자력 발전소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전력회사에 요청했다고 발표
  -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 대해서는 “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된다.”고 언급
  - 원전 경계태세와 관련하여 경상대신은 “전력회사와의 연계강화를 진행시키고 있고,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.”고 언급
  - 북한제재에 대해 **“무역은 완전히 멈추고 있다.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할 생각”**이라고 언급
- JR도카이 등 11사, 美플로리다 고속철도 입찰 참여
  - JR도카이는 철도차량 관련 회사와 종합상사 등 11사와 공동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철도 사업에 입찰한다고 발표
  - 플로리다주 탬파-올랜드 간 약130Km로 계획 중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목적
  - 일본은 **프로젝트 수행능력, 이산화탄소(CO2)배출량이 적은 신칸센의 환경성능, 그리고 1964년 개통 이래 한번도 「사망사고」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안전성을 강조할 예정**
  - \* 브라질 고속철도계획에 일본(미쓰이물산, 미쓰비시중공업)과 프랑스 참여포기 표명
- 미쓰비시 등 종합상사, 해외근무 의무화 추진
  - 미쓰비시, 미쓰이, 이토추 등 종합상사들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해외 근무를 의무화하는 인사제도를 추진
  - 미쓰비시는 내년부터 입사 8년 미만의 모든 사원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해외지사 연수와 어학연수를 겸한 ‘글로벌 연수생’ 제도를 도입
  - \* 미쓰이물산도 입사 5년 이내의 직원들을 매년 120명 희망 지역에 파견하는 제도 도입
- 삿포로홀딩스, 매일유업(주)과 수입·판매 제휴
  - 日삿포로홀딩스는 25일, 한국에서의 맥주판매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발표
  - 삿포로홀딩스는 매일유업과 맥주수입, 판매를 위한 양해각서(MOU)를 맺었음
  - 매일유업은 와인을 수입하는 자회사인 레뱅드 매일을 통해 삿포로맥주를 수입하여 연말부터 판매할 계획
  - \* 삿포로HD은 다른 한국기업과 제휴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, 08년 철수한 경험이 있었음. 11년 30만 케이스(1케이스=24병), 15년에는 150만 케이스까지 확대시킬 계획

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**“희토류, 일본에 필요한 전략”**  
(오카베 동경대생산기술연구소 교수 인터뷰)

## ▷ 희토류에 대해서

- 희토류는 현대사회에 불가결한 광물자원이며, 없으면 산업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
- 하지만 희토류 중에서도 비교적 풍부한 것도 있고, 원소에 따라 자원량, 성질, 값, 용도가 완전히 다름. 희토류를 뭉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,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

## ▷ 일본의 희토류전략

## (1) 문제점

- 일본에는 「레어메탈 비축」이라는 제도가 있지만, 최근 공급부족의 위기에 직면한 희토류는 비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
- 지금 일본이 비축하고 있는 분량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들로, 이러한 것들이 비축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음

## (2) 대책

- 일본의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**희토류의 비축을 강조**
  - \* “저라면,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는 디스프로슘이나 터븀, 남아공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로튬이나 백금 등, 지구 전체의 자원량이 지극히 적은 것을 비축하겠다”
- **재활용 사회메커니즘 구축**
  - \* “제품에 사용되는 **레어메탈의 감량, 대체재료개발, 레어메탈의 재활용기술 개발이 중요**. 현재 한번 쓰고 버리는 **레어메탈을 재활용하여 순환시키는 사회제도 구축이 필요**”

## ▷ 인재육성

- 일본의 레어메탈 연구는 세계 톱 수준이며, 하이테크 기기용의 희토류를 사용한 강력자석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사람도 일본인임
- 그러나 희토류를 비롯한 레어메탈은 마이너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, 항상 연구 인재가 부족.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
- 또한, 희토류의 채굴, 제련은 방사성물질이나 중금속을 포함하는 폐액 등 유해한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**환경보호의 영역이기도 함. 희토류 이용과 환경보전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**

\*출처: 마이니치신문(11/22)

## 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한국의 인프라 수출보고서』 일본전기공업회, 11월 22일  
\*출처: [https://www.jema-net.or.jp/jema/data/201010korea\\_infra.pdf](https://www.jema-net.or.jp/jema/data/201010korea_infra.pdf)
- (2) 『아시아에서 확대되는 에코시티』 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, 11월 23일  
\*출처: [http://mitsui.mgssi.com/issues/report/r1011k\\_kyodo.pdf](http://mitsui.mgssi.com/issues/report/r1011k_kyodo.pdf)
- (3) 『농업총생산 출하액』 농림수산성, 11월 24일  
\*출처: [http://www.maff.go.jp/j/tokei/pdf/sansyutu\\_gaisan\\_2009.pdf](http://www.maff.go.jp/j/tokei/pdf/sansyutu_gaisan_2009.pdf)
- (4) 『10월 중소기업경황』 중소기업단체중앙회, 11월24일  
\*출처: <http://www2.chuokai.or.jp/keikyou/kei1010.pdf>
- (5) 『확대경향에 있는 氣象의 경기영향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11월25일  
\*출처: [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naga/pdf/n\\_1011a.pdf](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naga/pdf/n_1011a.pdf)
- (6) 『환경비즈니스 스톡홀름의 도전』 JETRO, 11월26일  
\*출처: [http://www.jetro.go.jp/jfile/report/07000410/sweden\\_kankyobiz.pdf](http://www.jetro.go.jp/jfile/report/07000410/sweden_kankyobiz.pdf)

## 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11월 22일(월)	○ 10월 전국 슈퍼매출 발표(일본 체인점협회) ○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 기자회견
11월 23일(화)	- 근로감사의 날(공휴일) -
11월 24일(수)	○ 10월 전자기기 국내출하실적 발표(전자정보 기술산업협회) ○ 북한포격사태 대책회의 개최(경산성) ○ 제3회 한중일 FTA산관학 연구회, 12월1일 개최일정발표
11월 25일(목)	○ 10월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 ○ 10월 기업물가지수 발표(일본은행) ○ 10월 일본가전제품 국내출하 실적 발표(일본전기공업회)
11월 26일(금)	○ 지경부 박영준 제2차관, 日호소노 자원에너지청장과 회담 * 한일희토류 공동개발협력 논의 ○ 10월 소비자물가 지수 발표(총무성)